



포천시 문화예술단체장 (사)경기소리보존회 포천시지부장 박영실

영평팔경가 완성도 높여 서울公演

(사)경기소리보존회 포천시지부는 포천에 경기민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2004년3월16일 창립하여 현재 40여명의 회원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포천시지부를 이끌어가고 있는 박영실 지부장은 중요무형문화재 제57호(보유자 목계월) 이수자로 활동중이다.

경기소리보존회는 과천에 중앙회 사무실이 있으며 무형문화재 제31호 임정란 보유자에 의해 전승, 보존되고 있다.

그동안 추진해온 주요사업은 먼저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경기소리를 전수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해왔으며 우리사회 노인 분들과 함께 흥겨운 가락을 함께 나누는孝풍연을 매년 해오고 있다.

아울러 포천시의 자랑이라 할 수 있는 영평팔경가를 소리극으로 탄생시켜 매년 무대에 올리고 있다. 올해로 세 번째 무대에 올리게 될 영평팔경가는 포천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충분한 작품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첫 해에 경기문화재단에서 900만원을 지원하면서 시작되어 올해는 포천시와 경기문화재단에서 지원 받아 더욱 멋진 무대를 선

보이기 위해 새해 시작부터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올해는 대전대학교를 비롯 지역 예술단체들과의 연대를 통해 작품완성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박 지부장은 "영평팔경은 포천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노래한 대표적인 작품으로 이를 소재로 한 소리극의 탄생은 포천의 정체성과 아름다운 이미지를 널리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는 서울의 큰 무대에도 영평팔경가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학교 학생들에게 우리 가락을 전수하고자 하지만 협조가 잘 안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방과후 학교나 수업시간을 이용해 지라나는 학생들에게 우리가 락과 소리를 전수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당국의 적극적인 관심과 학부모와 학생들의 노력 등이 삼위일체가 되어야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운영중인 각 주민자치센터에서도 경기도 소리를 보급하고 전수하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사무실과 연습실을 유립

회관 3층으로 이전한 경기소리보존회 포천시지부는 경기소리에 관심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찾아와서 배웠으면 하는 바램이다. 어떤 시민이든 관심을 갖고 찾아오면 소리를 전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고 한다.

또 박 지부장은 포천시에 바라는 사항에 대해 "보다 실질적인 예산지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며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을 받아 무대에 올리는 공연에 대해서는 포천시가 매우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 다양한 시민들이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포천신문에 대해 박 지부장은 "시민들과 공연제작자 사이를 잘 연결해줄 수 있는 매체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많은 시민들의 언론매체로 성장한 포천신문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박 지부장은 앞으로 활동계획에 대해 "우선 영평팔경가를 수준 있는 작품으로 제작하는데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히고 "서울 무대에서의 공연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어린 학생들에게 우리 소리를 제대로 전수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경기도포천교육청과 각



급 학교에서는 좀더 큰 관심으로 경기소리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장서 주기를 당부하기도 했다.

서울·경기지방의 소리인 경기소리의 노래의 느낌이 대체로 맑고 경쾌하며 말 붙임새가 독특하고 선율의 골목이 유연하면서도 장식음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지역의 예술단체가 그 실력을 다하여 작품을 제작하고 무대에 올려 관객들과 함께 호흡하여 사회의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히고 "서울 무대에서의 공연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어린 학생들에게 우리 소리를 제대로 전수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경기도포천교육청과 각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韓國의 선비정신 · 56

보신각(普信閣)의 종



리효종 포천시사 대표

■파루(罷漏) : 33번 타종 - 33天的 원리.

■동양 고대의 우주관 : 동서 남북 사방에 각 8계층의 하늘이 있고, 그 가운데 이 모두를 지휘하는 견선성(見善城---제석천:帝釋天)이 있다고 보았다. 모두를 합치면 33개 하늘(33천).

■인정(人定) : 28번 타종 - 우주상신(宇宙星辰) 28수(宿)의 원리.

조선왕조는 성리학(性理學)을 건국이념과 통치철학으로 내세우며 등장하였다. 개국에 즈음하여 조선의 기본정치를 밝히기 위해 삼봉(三峰) 정도전(鄭道傳) 등에 의해 찬정(撰定)된 조선경국전(朝鮮經國典)은 개국의 이념과 통치철학을 명문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500년 사직의 '마스터플랜'이라고 볼 수 있는 조선경국전을 보면 경탄을 금치 못하게 된다. 14세기말 이 지구상에서 이토록 뚜렷한 건국이념과 통치철학을 명문화한 나라이지만은 없었다.

성리학의 근본적인 핵심을 요약한다면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 오상(五常)일 것이다.

이 이념과 철학이 실증적으로 어떻게 표현되었는지를 살펴 볼 수 있는 흥미로운 예가 우리의 문화유산 속에 아직도 남아있다.

조선조의 수도인 한양,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유서깊은 수도 서울이다. 경복궁(景福宮)을 짓고 동서남북의 4대문을 뒀다. 우리가 동대문이라고 축성하는 문의 이름은 흥인지문(興仁之門), 속칭 서대문은 돈의문(敦義門), 남대문의 본 이름은 숭례문(崇禮門), 북대문은 홍지문(弘智門)이다.

성리학의 인의예지(仁義禮智)를 표현한 것이다. 즉 인간의 참

다운 본성(本性), 그 최고의 가치들을 사방의 각 대문에 하나씩 현양하고 있는 것이다. 이 신생국가는 총칼로서가 아니라 인의예지로서 백성을 다스려 나가겠다고 하는 통치자의 확고한 의지가 천명된 것이다. 조선왕조가 얼마나 뚜렷한 명분위에 발을 딛고 출발한 나라인지를 알 수 있다.

그러한 의미를 지탱해주는 것이 또 있다. 4대문 사이사이의 소문(小門)들이다. 광화문(光化門), 혜화문(惠化門), 돈화문(敦化門), 흥화문(興化門), 선화문(宣化門)등이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화(化)라는 글자를 품고 있는데, 이것이 함의하는 바는 교화민속(教化民俗), 즉 백성을 가르쳐 풍속을 순화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크고 작은 문들의 이름을 종합하여 그 의미를 추출해보면 인의예지로서 백성을 다스리고 교화해 나가겠다는 것이 된다. 참으로 차원 높은 개국의 변(辯)이 아닐 수 없다.

그 뿐이 아니다. 종로 네거리에는 보신각(普信閣)이 세워졌다. 여기에 종을 매달고 이 종이 울리는 것이 맞추어 저 인의예지(仁義禮智) 4대문을 열고 닫았다. 여기에 신(信)을 더하여 오

상(五常)을 이루었다.

이 보신각종을 흔히 짚어 있는 여느 종들과 다름없이 생각해 버리지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우선 이 세상의 모든 종들은 그것을 몇 번 울리느냐 하는 것이 종잡이의 마음에 달려 있지만 종잡이 마음대로 칠 수 없는 유일한 종이 있다면 바로 우리나라 보신각종일 것이다.

이 종을 몇 번 울리느냐 하는 것에는 엄격한 규정이 있다. 한 밥이 되어 4대문을 닫는 인정(人定)은 28번을 쳤다. 28이라는 숫자는 하늘의 별자리 28수(宿)에서 나왔다. 그 28수를 모두 거쳐 천지가 1순환을 마치면 하루가 끝난다고 보아 그렇게 쳤던 것이다.

새벽이 되어 4대문을 여는 파루(罷漏)는 33번을 쳤다. 오늘날에도 한 해를 마무리 짓고 새 날이 밝을 적에 제야(除夜)의 의미로, 또 3·1절이나 광복절 기념 행사 때 이 종을 33번 친다.

33번이라는 수는 33천(天)에서 나왔다. 이는 동양고대의 우주관을 반영하고 있다. 옛날 사람들은 동서남북의 각 8계층의 하늘이 있고 그 가운데 이 모두를 지휘하는 제석천(帝釋天)이 있다고 보았다. 모두 합치면 33천(天)이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단군(檀君) 할아버지의 부조(父祖)이신 환인(桓因)과 환웅(桓雄)이 제석환인(帝釋桓因)이라는 신화(神話)가 있다. 제석신앙(帝釋信仰)은 하늘에 대한 의경심리(畏敬心理)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민족문화 대백과사전, 동서문화 대백과사전, 한국인에게 무엇이 있는가(홍일식저), 진단학보(靈障學報)

2007년 포천시 주요 문화예술 예산현황

- ▶일본유명비 ▶관광상품제작 및 구입 2천만원 ▶관광 접지지도 제작 1천482만원 ▶관광가이드북 1천500만원
- ▶1월 관광코스맵 제작 1천400만원 ▶산정호수 명상산 안내도 제작 1천만원 ▶제5회 경기도관광박람회 부스 사용료 300만원 ▶북한휴양도시 개발 추진사업 운영비 500만원 ▶관광지 위법행위 행정대집행 1천500만원 ▶세계도자비엔날레 참가 경비 250만원 ▶축제(명성산악새꽃, 숲속제) 홍보물 제작 60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2천514만원 ▶세계도자비엔날레 참가 경비 350만원 ▶민간행사보조 ▶산정호수 명상산 역사예술포 1966천만원 ▶백운계곡등산코스 8천만원 ▶미시비 ▶관광표지판 설치 및 보수 3천만원 ▶포천갤러리 내부 시설공사 7천200만원 ▶행사관련실비 ▶제5회 경기도관광박람회 부스설치 2천만원 ▶행사운영비 ▶포천 아시아 비엔날레 개최 1억5천만원 ▶민간경상보조 ▶제25회 전국연극제 경기도대회 참가(연극협회) 600만원 ▶마음합창단 정기공연(마음합창단) 500만원 ▶제6회 시민과 함께하는 무용공연(무용협회) 900만원 ▶전국무용제 경기도 예선 참가(무용협회) 500만원 ▶어린이무용단 창단공연(무용협회) 500만원 ▶제7회 시민과 함께 하는 국악공연(국악협회) 500만원 ▶포천별곡 영평팔경가 공연지원(경기소리보존회) 2천만원 ▶경기소리보존회 정기공연 500만원 ▶제4회 마춤문화대학(문인협회) 500만원 ▶제9회 포천사랑 시 낭송대회(문인협회) 300만원 ▶제6회 포천사랑 백일장대회(문인협회) 700만원 ▶이해조문학회 학술세미나 개최지원 700만원 ▶제4회 산자수명 포

- 천미술실기대회(미술협회)1천100만원 ▶제4회 포천현대미술제(미술협회) 700만원 ▶자연사랑 어울림전(미술협회) 1천만원 ▶제5회 포천청소년 연극제(연극협회) 300만원 ▶제14회 포천 어린이 연극 경연대회(연극협회) 400만원 ▶문화인 사업활동지원 4천만원(시1천530만원,교 2천469 만9천원) ▶학교 및 단체 문화답사(문화원) 1천만원 ▶반월문화제(문화원) 2천500만원 ▶한시백일장(문화원) 2천만원 ▶문화학교 운영(문화원) 6천200만원 ▶문화체험학교 운영(문화원) 400만원 ▶회화대회 개최(문화원) 2천만원 ▶포천시역사문화 학술포럼(문화원) 500만원 ▶향토사 발전(문화원) 3천만원 ▶경로효친자(경기소리보존회) 300만원 ▶성민원 ▶행사지원(유도회포천지부) 350만원 ▶전통다례 교육지원(여성유도회)500만원 ▶기요연 행사지원(포천향교) 500만원 ▶청소년 인성교육 보조(포천향교) 400만원 ▶충효교육(포천향교) 200만원 ▶한복사학회 자료집 발간(한복사학회) 200만원 ▶제16회 고산 정월대보름 축제 지원 3천만원 ▶포천학 연구지원(대전대 인문학연구소) 1천만원 ▶오성고 함을 연구 지원(대전대학교) 1천500만원 ▶2007 마을문화제 행사지원(포천예총) 500만원 ▶포천시 소년소녀합창단 지원 2천400만원 ▶문화인 사무국장 인건비 2천만원(시 1천만원,교 1천만원) ▶사회단체보조금 ▶포천문화원 2천500만원 ▶정소년 인성교육 보조(포천향교) 400만원 ▶포천예총 포천지부 4천100만원 ▶포천예술인동우회 200만원 ▶한국한시협회 포천지회 200만원 ▶일본유명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2천1215천원(교 231만5천 원, 기 490만7천원, 시 1천290만3천 원) ▶몽역비 ▶용연연인 동서재터 발굴조사 3천만원(시 1천500만원, 시 1천500만원) ▶민간경상보조 ▶향교 유립 전통문화 시연(기요연) 252만원(도 84만원, 시 84만원, 교 84만원) ▶우수전통민속 보존사업 지원 600만원(도 300만원, 시 3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예술단체 지원사업 3천만원(도 1천500만원, 시 1천500만원) ▶민간행사보조 ▶제17회 경기도 아마추어 연극제 참가지원 600만원(도 300만원, 시 300만원) ▶안동감지 고가 안채 복원 5억5천800만원(도 2억9천400만원, 시 2억9천400만원) ▶포천메나리 다용도실 증축 6천만원(도 3천만원, 시 3천만원) ▶문화재 보호구역 설정 현황 측량 1억1천만원(도 5천500만원, 시 5천500만원) ▶제16회 보조 ▶홍릉사 종무소 보수 1억2천만원(도 6천만원, 시 6천만원) ▶왕산 시 지정정 보수 2억원(도 1억원, 시 1억원) ▶조경선생 사당 보수공사 1억5천만원 ▶효자 신급 정문 복원 6천700만원 ▶문화재 안내판 및 안내표지판 설치 1천만원 ▶문화재 긴급보수비 2천만원 ▶만월아트홀 행사운영비 ▶영화필름 대여비 7천200만원 ▶공연단체 초청비 5억원 ▶삼지공원 행사지원비 6천200만원 ▶예술단원 ·운봉부 보상금 ▶시립예술단 운영관리비 2억2천41만원

보드빌리언 찰리 채플린 (Charlie Chaplin)과 마녀사냥



윤우연 (대전대 교수, 연출가)

찰리 채플린(Charlie Chaplin)은 1889년에 영국 런던의 한 빈민가에서 태어났다. 당시 영국에서는 본격적인 뮤지컬이 탄생하기 전에 미국의 보드빌이라는 공연형식과 비슷한 뮤지홀(Music Hall)이 인기를 끌었는데 호화로운 전 문극장이 생기면서 절정을 이루고 있었다.

부모가 모두 뮤지홀에서 활동하던 다재다능한 보드빌리언(배우 겸 가수)이었던 아버지가 일찍 죽고 어머니마저 정신병을 앓게 되자 10세 되던 해에 자립해야 했다. 어린 나이였지만 이미 훌륭한 탭 댄서로 활약하며 프로무대에 데뷔한 채플린은 14세에 정예에 출연하게 되었고 배우로도 이름을 얻었다. 결국 뮤지홀에서 보드빌리언으로서의 활동이 시작되었다. 노래와 춤 그리고 어릿광대의 마임 연기와 풍자, 흉내 등은 이 때 습득된 것이었다.

영국에서 보드빌리언으로서의

입지를 굳힌 후 채플린은 공연단을 따라 미국 투어 공연에 참가하게 되는데 그곳 영화사에서 그의 희극적인 재능이 높이 평가되어 할리우드에 진출하게 되는 행운을 잡는다.

1914년에서 1915년까지 초창기 채플린의 영화 주연공은 약삭 빠르고 평범한 사람들을 골탕 먹이는 악동 같은 인물이었다. 인간적인 면은 전혀 보이지 않으며 남자들을 괴롭히고 여자들에게 추파를 던진다. 당시의 희극 분위기에 편승한 슬랩스틱 코미디로 해학은 없고 익살만 있었다. 그렇지만 보드빌 배우로서 잔뼈가 굵은 채플린에게 시사풍자에 대한 묘사는 미국 하층노동자들을 옹호하고 이민 사회를 극렬하게 비판한 비 미국행위로 지적되었으며 한편으로 FBI 국장 매카시에 의해 끝없이 제기된 공산주의자라는 모함으로 가족 모두가 미국을 등지게 만든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더욱이 채플린의 부인인 오나 오닐(Oona O'Neill)이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미국의 저명한 극작가 유진 오닐(Eugene O'Neill)의 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극렬 보수주의자들을 등에 업고 채플린의 절대권력 앞에는 속수무책이었다.

비 미국행위 조사위원회는 1930년대 나치의 스파이 활동을 조사하고 감시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2차 대전 후에는 구 소련의 공산주의에 대한 위협으로

인 표현이었던지 아니면 풍자를 담은 해학적인 표현이었던지 보는 사람에 따라 각기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었지만 이것이 후에 있을 '비 미국행위 조사위원회(House Un-American Activities Committee)'와 '매카시즘(McCarthyism)'에 표적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더욱이 1936년에 개봉한 괴담 '모던 타임즈(Modern Times)'는 결과적으로 채플린이 미국을 떠나 스위스에 정착하게 만든 작품이었다.

영화 속에서의 노동자들에 대한 묘사는 미국 하층노동자들을 옹호하고 이민 사회를 극렬하게 비판한 비 미국행위로 지적되었으며 한편으로 FBI 국장 매카시에 의해 끝없이 제기된 공산주의자라는 모함으로 가족 모두가 미국을 등지게 만든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더욱이 채플린의 부인인 오나 오닐(Oona O'Neill)이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미국의 저명한 극작가 유진 오닐(Eugene O'Neill)의 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극렬 보수주의자들을 등에 업고 채플린의 절대권력 앞에는 속수무책이었다.

비 미국행위 조사위원회는 1930년대 나치의 스파이 활동을 조사하고 감시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2차 대전 후에는 구 소련의 공산주의에 대한 위협으로

공산주의자 색출을 위한 마녀사냥의 도구로 이용되었다. 채플린은 위원회로부터 여러 번 출두 명령을 받았으나 불응했다. 급기야 FBI 국장 매카시가 가세하며 매드컴마저 주무르기 시작했고 모든 매체가 앞 다퉈 채플린을 비롯하여 진보적인 예술가들을 비난하기 시작했다. FBI의 체포령에 관한 파일은 1900페이지에 달했다고 한다. 이에 굴하지 않고 베르톨트 브레히트(Bertolt Brecht) 등 진보적인 예술가들과 친분을 유지했던 채플린은 미국을 떠나기 전까지 빨갱이 색출해프닝으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았다.

19세기 보드빌에서의 풍자에는 사회적 이슈가 희화화되어 있었지만 채플린의 작품들은 바로 그런 점에서 보드빌 공연에서의 풍자적인 해학극(발레스크)이라고 말할 수 있다. <모던 타임즈(Modern Times)>의 마지막 장면에서 보여준 노래와 춤과 연기는 자극히 현대적인 뮤지컬 코미디로 보는 듯하다. 기발한 페르소나로 만인에게 즐거움과 페이스스를 안겨준 채플린은 진정한 의미의 보드빌리언이었으며 슬랩스틱 코미디로 단세포적인 웃음만을 유발했던 당시 분위기에 해학적 코미디가 무엇인가를 극명하게 보여준 유일한 희극배우였다.



수필가 김창종의 <포천 이야기> (190)

조성하 (趙成夏)대감

우리는 TV-연속극을 통해 역사 공부할 대는 경우가 많다. 「명성왕후」를 통해 조선조 말 고종시대의 정치적 내막상을 흥미롭게 실감을 느끼며 온 국민이 열광하였던 배경이 TV연속극으로 라디오 드라마로 소설로 화제를 모았던 「명성왕후」는 나라의 흥망 성쇠를 숨김이 없이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그 인기를 더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내 고향 포천 땅 일동면 기산리에 「명성왕후」와 「조대비」와 함께 등장했던 조성하 대감의 묘소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또, 조대비

와 조성하 대감의 후손들이 포천에도 명문가의 후손으로 다수 살고 있다는 사실은 서글픈 일이 아닐 수 없다. 조성하 대감은 현종 11년(1845년)에 태어나 고종 18년(1881년)까지 살았는데 풍양조씨 문중의 인물이다. 철종 12년 식년 문과에 급제하여 동부승지, 도승지 등 임금을 가까이서 모시는 요직을 거쳤는가 하면 흥문관, 직제학, 동지춘추관사, 동지금부사, 한성우윤평안도관찰사 등을 역임하고 이조판서 등을 제수 받는가 하면 의정부좌참찬, 계문제학을 제수 받는 등 화려한 경력의 빛나는 관료(官路)를 걸어온 분이였다.

우리는 조성하 대감이 왜 다른 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평안도 관찰사(고종11년 1874년)로 나가 재직 당시 평안도 지방의 토호(土豪)들의 병폐를 뿌리뽑고 힘있고 약한 자를 도왔다는 점이다.

둘째,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자세로 국방을 튼튼히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병기(兵器)를 수선하고 산성(山城)을 중수(重修)하고 성벽의 담장을 새로 쌓는 등 큰 업적을 남겼다는 사실이다.

셋째, 고종 13년(1876년) 일본이 개항을 요청하여 군함으로 침범한 경력의 빛나는 관료(官路)를 걸어온 분이였다.

서 보고만 있겠는가?" 라고 하고는 북돋에서 일만량을 내놓고 군량미 일천석을 거두어 병초에 보냈다는 사실이다. 조대감은 조대비의 친정 조카로 외척의 세도만을 누렸던 인물이 아니라 나라가 위급할 때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알았던 위대한 인물이었다.

개화당의 정변의 희생물로 희생되었으나 그는 '나라' 사랑의 길,이 무엇인가? 를 알았던 애국자였던 것이다.

죽을 당시 문관에게 무기를 소지하지 못하게 한 조선조의 제도를 한탄하며 개화당 정변 시 사할 하였다.

님의 시호는 「문헌공」이다. 문무(文武) 겸전의 충신이었으나 37세의 젊은 나이에 희생되었음은 애석한 일이었다. 우리는 여기서 수구파와 개화파의 옳고 그름을 논하기 보다는 오직 나라 사랑의 길을 가려던 정신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필자연락처 02-932-2434

초대 漢詩



香隱 柳鳳鉉 (포천한시사 강사)

詠小春風光 (영소춘풍광)

言能百忍可無尤(언능백인가무우) 勉學修身老不休(면학수신로불휴)
말은 능히 백번은 참아야 허물이 없는데 힘써 배우고 몸을 닦는 것은 늙어도 쉬지 않네.

歲祀奉行誠意篤(세사봉행성의독) 祭需買人庶濫擾(제수매인서수우)
세사(시향)번드는 성의가 돈독하여 제수는 분수에 맞게 정성을 담아야 하네.

閭閻奔走經冬事(여염분주경동사) 都市多忙玩賞遊(도시다망완상유)
여염에서는 율동 준비하는 일로 분주다사하고 도시에서는 관광행사가 바쁘구나.

寂寞江山依舊舊(적막강산의구양) 滿眸風景畫難收(만모풍경화난수)
적막한 강산은 옛날과 변함이 없는데 눈에 가득한 경치는 그림으로 표현하기 어려워라.